**아동·청소년 시설 추후 이용의향\_지역아동센터**

조사대상 규모: 여주시 표본 1,000가구내의 만 13세 이상 모든 가구원

전체적으로 지역 아동 센터를 추후 이용할 의향이 매우 낮음.

몇 부분에서 의향이 높은 곳이 있는데, 교육정도별 응답 비율에서 중졸 부모인 경우가 100%가 나왔는데, 표본을 알 수 없어, 신뢰가 안됨.

연령별 응답 비율에서 30~39세 이하의 이용 의향 “있음”이 39.7%, 약 40%가 나왔는데, 20~29세가 없다는 게 너무 아쉬움. 하지만 비슷한 사회적 환경을 공유하기에 30~39세와 비슷한 비율로 의향이 ‘있음”이지 않을까 생각함.

여성의 이용 의향 “있음”의 비율이 남성의 약 두배인 27.3%로 여성이 아동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나 서비스에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음.

2인가구(한부모 가정이거나, 아직 자녀가 없는 가정)이 3인 가정과 4인 과정보다 높은 이용 의향을 보였는데, 낮에 자녀를 돌보아줄 서비스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따라서, 20대, 30대 여성/2인가구를 타겟으로 관심을 가질만한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을 제안 해야함.

**초등학생 초등돌봄/방과후교실, 지역아동센터에 보내지 않는 이유**

조사대상 규모: 전국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한부모 3,300명

시설/기관 이용 필요성을 못 느낌이 가장 높은 비율(전체 35.9%)로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제공되는 서비스와 요구간의 불일치, (프로그램의 인식부족, 홍보 부족)으로 해석할 수 있다. 타겟으로 설정한 가정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지역 아동센터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함.

2인 가구인 경우, 부모님이 직장에 다녀 아이들을 케어 할 시간이 많이 부족할 테니 부모와 자녀가 함께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모의 스케줄에 맞춰 주말/야간 프로그램(보통 지역아동센터는 주말에 운영 안하는걸로 암), 주말에도 일을 나가서 아이 케어를 못할 하는 경우을 위한 주말 특별 프로그램(체험활동, 예체능 등등) 개설, 자녀의 심리나 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등

**연령별/보육상태별 아동인구(12세이하, 일반가구)-시도**

전체적으로 지역 아동센터의 이용률은 1%미만으로 아주 낮은 이용률을 보여주고 있음.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집안은 부유한 집안일 것이라 예상이 되고,

조부모,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돌봄교실, 학원에서 보육되고 있는 아이들을 지역아동센터로 데려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됨.

그렇다면 혼자 또는 다른 아동과 지내는 아이들을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으로 유인해야한다고 생각함.

아니면 조부모가 보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조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세대 차이가 남으로써, 세대 간 연결 활동 강조?

**인지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매우 높음. 하지만 이용률은 떨어짐. 이것으로 인지 부족이 아닌 서비스와 요구의 불일치로 해석할 수 있음. 그러므로 20~30대 여성/2인가정/조부모가 보육하는 가정을 타겟으로 하는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60세 이상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19.5%로 낮은 수치를 보여주는데, 조부모가 손주를 키우는 가정이 인지율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음.

타겟:

20대~30대 여성

2인가정

혼자 또는 다른 아동과 지내는 아이들

조부모가 보육하는 아이들